

오지가타케 산

해발 234 미터의 오지가타케 산은 다마노시와 구라시키시의 경계에 있으며, 시부카와 해안과 세토 내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. 이 산과 그 주변은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의 일부이며 볼더링, 패러글라이딩, 하이킹 등 아웃도어 활동의 중심지입니다.

오지가타케는 도보로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. 차로 산에 있는 주차장까지 갈 수 있으며, 거기서 비포장 길을 따라 조금만 걸으면 정상 부근의 파크 센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3 개의 등산로가 있어 그중 하나를 따라 정상까지 하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정상까지는 약 1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정상까지 가는 길에 초목에서 튀어나온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바위들은 모양이 특이하여 로프나 하네스를 사용하지 않고 큰 바위를 오르는 볼더링 애호가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이 산은 일본에서 이 스포츠가 처음 보급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.

파크 센터 내 카페에서는 큰 창문과 옥상에서 세토 내해와 수많은 섬들의 파노라마 뷰를 바라보며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구라시키시 고지마, 혼슈와 시코쿠를 잇는 12km 길이의 세토대교, 가가와현 사카이테시와 다카마쓰시, 그리고 미술관과 예술작품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오시마의 일부가 보입니다.